독 자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 · 지적사항 · 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나의 의견

주인 잃은 사찰토지 전국 산재 불교인 되찾기 운동 전개 필요

얼마전 현대불교신문에서 한 스님이 잃었던 사찰토지를 되찾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 여겨졌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부분의 사찰토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듯 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일제시대때 많은 절이 불에 타 없어지고 그래서 사찰의 흔적이 없는 탓에 그 땅을 잃게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좀더 정확한 조사와 실증이 있어야 확실한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문제는 망실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불교계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안있어 토지실명제도 실시된다. 옛 스님들과 불교인들이 애써 가꿔온 땅과 재산을 후대 불교인들이 되찾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스님들과 종도들은 서로 합심해 망실재산 되찾기 불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정당한 불교인이 됐을 때 포교의 장도 한층 넓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정민화〈광주시 광산구 마륵동〉

불교 양로원 · 고아원 시설미비 교계차원 관리 · 재정 지원해야

몇년전부터 사찰의 뜻맞는 보살들과 함께 고아원과 양로원등을 방문해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며 때로는 말벗이 돼주기도 하는 등 작지만 불자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러 간 그곳은 불교양로원 불교고아원이라는 이름만이 있을 뿐 노인들이나 고아들이 아무런 불교적 감흥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하기 그지 없다. 지난번 서울교외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전부터 몇차례 오가면서 그곳 아이들과 얼굴을 익혀 놓아서 다른곳의 아이들보다 더 친근하던 터였다. 그런데 그중 한아이가 나를 보더니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시다며 우겨대는 것이었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 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불교고아원이라는 그곳에 기독교 선교단체가 빵이며 장난감들을 사들고 와 선교를 했던 것이었다. 고아원 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고아원 살림에 도움을 주니 거절할 필요가 없었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상의 그 어떤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몇개 되지도 않는 불교고아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불교계와 종단에서는 어떻게 관리와 관심을 보여왔는지 보지 않고도 다 알것같았다.

얼마전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인가가 났다는 기사를 현대불교 신문에서 읽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처음부터 큰 복지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가까운곳의 가장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복지사업이 전개되길 기대해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길 기원한다.

박선숙〈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현대불교를 읽고

읽기 편한 활자로 바뀌었으면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보는 독자입니다. 다른 불교계 신문보다도 성의있게 제작되고 있음을 항상 지면을 통해 느낍니다.

그러나 신문은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읽는 차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 신문의 사명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보기 좋은 신문이 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될것입니다. 읽는데 중요한 것은 활자입니다.

읽는데 부담없는 활자 편안한 활자의 선택이 현대불교신문을 보는 신문에서 읽는 신문으로 끌어들이는 비결일것이라 생각됩니다.현대불교신문이 여러가지 면에서 우수하지만 읽는데 편안한 활자가 아니어서 읽는데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점을 검토하고 수정한다면 보다 더 훌륭한 신문으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택〈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불자 목소리 대변지 역할 충실

먼저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교계 언론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된 현대불교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면 증면 발행, 타블로이드판 별지등 기존의 교계신문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성의 추구에 노력이 엿보이지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보인다.

우선 용지 부족으로 인한 용지값 인상으로 전국언론이 자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불교의 증면발행은 읽을거리의 풍부함과 타교계신문들과의 '차별성' 어느쪽에 더 큰 의미를 두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알찬 내용과 다양성의 추구는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기존의 일간지를 모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또 현대불교만이 지닌 색깔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문화와 단순한 홍보기사에 너무 치우친 듯한 감이 적지않다. 잔잔한 필치와 소재, 편집의 외관상 미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능력있는 '현대불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유재민〈경북 경주시 동천동〉

지상법석에 재가불자도 참여를

현대불교의 지상법석을 매주 유심히 보는 독자입니다. 저희 불자들이 쉽게 뵙고 법문을 청할 수 없는 대덕스님을 만나 설법을 청하고 또 그 법문을 활자를 통해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새겨 읽을때마다 마음이 넉넉해 지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귀한 불법인연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상법석 페이지가 스님법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스님뿐 아니라 재가법사로서 불교전법에 큰 역할을 해 오신 분들도 지면에 모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가법사의 불교활동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불자들도 항상 스님들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형득〈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만화 法句經 법구경

☆어리석음의 장☆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이근후 건강칼럼 <21>

죽 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 죽음을 연상할수 있는 어떤 자극이라도 받게 되면 '불안'이 일게 되고 그 불안이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면 불이 나게 병원을 찾곤 하는 그런 환자다. 두번째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어쩌면 죽게 될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도 그런 질병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마음에는 그런 질병은 죽을 사람이나 앓는 것이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부인하는 자세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불안은 '죽음'으로 인한 불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적인 불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이 자신의 뜻과는 관계가 없으나 꼭 닥치고 마는 일이라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나, 죽음이 가까이 닥친 질병이란 것을 알려주어도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두 '죽음'이 두렵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고 방어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 전자는 두렵다는 느낌을 과장 표현함으로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려는 자아방어이고 후자는 죽음 자체를 부인함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물론 이런 자아의 방어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어떤 반응이던 마음의 근본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인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귀결되어 버린다.

생명에 집착보다 마음비우기로 불안 극복

백유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이야기 가운데 눈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눈이 있으면 반드시 눈병을 앓게 된다. 나는 지금은 눈병을 앓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눈병을 앓게 될런지도 모른다. 고러니 나는 내눈을 도려내어 ,눈병을 앓지 않게 하겠다' 한 어리석은 여인의 생각을 빌어 우리를 가르친 내용이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명제는 인간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수 있다. 두려운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깨친자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깨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담담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집착하고 불안이 많은 것이다.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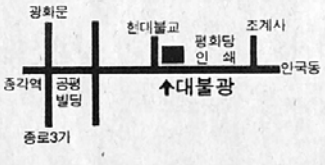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뿍 담아 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초롬히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룩하고, 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랑입니다.



大佛光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 (02) 738 - 1117
FAX : (02) 738 - 1118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갖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가피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大佛光"에 모든 불자님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러러 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大佛光"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大佛光"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루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장 허길용 합장